2020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저는 재수해서 서울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저는 완전 독립적인 스타일이어서 1차 때는 스터디 없이 혼자 체계적으로 계획 세워서 공부했어요.(계획 세우는 것을 평소에 굉장히 좋아해요!) 의존적인 성향의 쌤들 또는 즉흥적 성격의 쌤들은 제 방식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위주로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수 재수 때 합격수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합격수기를 읽을 때,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한글파일에 1차, 2차 나눠서 기록해 놓고, 제가 필요한 시기에 보면서 참고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 합격수기도 최대한 자세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 장수가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혹시 시간이 부족하신 쌤들은 회색글씨는 뛰어넘고 검정 글씨 위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덧붙여진 사진들은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읽기보다 전반적인 양식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수 때와 재수 때 점수

-2019 초수 (서울)

1차	전공	교육학	충점
점수	43점	13점	56점 (컷 -7)

사립위탁 합격해서 최종면접까지 봤지만 마지막에 탈락

-2020 재수 (서울)

1차	전공	교육학	총점
점수	56점	18점	74점 (컷 +6.67)

2차	실기	면접	수업실연	지도안	2차 총점	1+2차 총점
점수	27.33점	38.67점	17점	8.8점	91.8점	165.8점 (컷+13.66)

컷에서 +13.66점으로 최종합격

I. 전공 1차

▶초수 때 생활패턴

먼저 저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 바로 임용을 시작했어요. 교직이수를 했고 스터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용 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했었고, 합격이 굉장히 멀게 느껴졌었어요. 초수 때 마인드가 임용을 초수에는 절대 합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초수 때는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적당히 공부하다가 재수 때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후에 정말 두고두고 후회했어요ㅜㅜ) 그래서 1월에 처음 직강을 등록했다가 첫날 수업 때 필기도 다 놓치고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바로 인강으로 돌리고 4월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인강 듣는 시간 포함해서 순공부시간이 6시간 정도였어요. 4월에 첫 공개모의고사가 있었는데 등록을 해놓고, 너무 두려워서 가지 못했어요..! 이때 제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시험도 제대로 못보 겠구나 싶어서 5월부터는 관리형독서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급식이 나오는 곳이고, 핸드폰도 내야하고 화장 실도 쉬는 시간에만 갈 수 있어요. 월-목 아침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금, 토는 직강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직강을 듣고 복습을 바로 해야 하는데 금, 토 직강만 다녀온 후 공부하지 않았고(스터디도 하지 않았 습니다.), 일요일에도 공부하지 않고 쉬거나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금, 토 배웠던 내용을 월요일 오전에 복습했어요. 그래도 학원, 독서실에 있는 시간에는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했고, 하반기에 욕심이 생기면서 시 험 디데이 50일 전부터는 친구도 만나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초반에 공부시간 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하반기에 해야 할 공부양은 많고 시간은 부족했어요. 밥 먹는 시간도 줄이고 편의점 음식만 먹으면서 시험 전날까지 하루 종일 책만 봤지만 합격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ㅜㅜ 심지어 제가 시험 불 안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커요. 그래서 중요한 시험 전날에는 잠을 1-2시간도 못자는데 임용시험 당일 역시 11시에 누웠지만 결국 한시간정도 자고 시험을 보러갔어요. 엎친데 덮친격 시험 전날 저녁을 먹고 급체 를 해서 아침에 헛구역질만 하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시험장에 갔어요. 손도 떨리고 눈도 흐릿하고 긴 장은 최고조이고 상태가 너무 안좋았는데 교육학과 전공A형까지는 최대한 정신줄을 잡고 봤어요..! 선생님들 께서 중요하다고 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가능성이 없진 않겠다 B형만 잘 버텨보자 하고 B형을 보기 시작했 는데 전공B형에서 인생 최대의 실수를 했어요. 시험지 장수를 2장을 넘겨서 서술형 8번 20줄짜리를 3번 4줄

답안 칸에다가 써버린거에요. 마지막 줄을 쓰고 있는데 묻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상함을 느끼고 확인해보니 제가 모의고사 때도 하지 않았던 말도 안되는 실수를 하고 있었어요.(시험장에서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ㅜㅜ 꼭 답안지 옮겨 적을 때 문제번호 답안번호 확인하고 적어야해요!) 너무 초반에 큰 실수를 해서 순간 눈앞이 정말 형광노란색으로 보이더라구요. 왈칵 눈물이 났지만 꾹 참고 답안지를 교환해야하는지 고민 하다가 교환하면 한 문제를 통으로 못풀 것 같아서 그냥 교환하지 않고 역순으로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봤던 판화, 한지 문제도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도 모르게 검토도 못한채로 마무리하고 시험장을 나왔던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부터 집에 오는 길 내내 울고, 집 와서 밤까지 펑펑 울고 일욜에 정신 차리고 독서실 짐을 정리한 다음에 싹 털어내고 월요일에 바로 실기학원을 갔어요. 1차 합격자 발표 날 기대도 안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사립 위탁은 됐고, 사립 시험 준비하면서 수업실연, 면접에 대한 실전감각을 조금 익힐 수 있었어요. 초수의 실패경험을 통해 제가 느낀 점은 임용은 자기하기에 따라 달려있으며 초수에도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어요.(초수든 재수든 무조건 자신의 합격을 의심하시지 마시고,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야해요!) 그래서 더 많은 후회를 했고, 다시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2월에 공부시작 전에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초수 때 실패원인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기에 앞서 실패원인을 분석해보니 너무 명백했어요.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공부시작 전에 자신의 실패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서 합격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해요~!)

일단 첫째는 노력 부족으로 인한 '공부시간 부족'이었어요. 제가 직강 나간 날과 주말 시간을 너무 통으로 날렸더라구요. 그리고 친구들 많이 만난 것도 큰 원인이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친구들을 만나고, 한 달에 두 번 남자친구를 만났었기 때문에 주말에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둘째는 '기본이론서 회독이 부족'한 점이었어요. 이론을 배울 시기인 1-4월에 공부시간 부족으로 복습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개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10-11월에는 문풀 위주로 보기도 바빠서 문풀 위주로 복습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문풀이 이론을 토대로 만들어지므로 기본이론서, 심화이론서를 복습했으면 더 쉽게 틀을 잡을 수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또한 한지나 판화 애플랜드 등 제가 알고 있는데 당황해서 생각나지 않았던 부분도 마지막에 기본서 회독을 했으면 충분히 기억해냈을 내용이었더라구요.(이론이 가장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후회가 되었던 것은 장지연쌤 위상쌤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던 내용을 따로 한글파일에 옮겨놓고 관련 내용을 함께 찾아서 타이핑 쳐놓은 30장정도 되는 파일이 있었는데 시험 보기 하루 전에 2-3시간이 부족해서 그 중요한 것을 못 읽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재수 시작할 때 다시 읽어보니까 거기서 4-5문제가 나왔더라구요..!(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재수 때는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초반부터 최대 순공부시간을 끌어올렸고, 단권화노트에 선생님들께서 중요하다고 한 내용을 따로 표시해서 항상 회독하며 더 자주봤었어요.

셋째는 '시험불안과 체력부족'이었어요. 평소에 예민한 성격은 아닌데 중요한 시험이 다가오면 제가 불면 증, 소화불량, 식욕감소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매우 안좋아져서 이번 임용시험에서도 역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체력관리도 공부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재수 때 생활패턴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재수 때는 새로운 계획을 바탕으로 정말 '기계'처럼 공부했어요.

먼저 **강의**는 초수 때도 위상 재수 때도 위상 강의를 들었는데 초수 때 1차 2차 모든 강의를 들었고. 재수 때는 교과서분석과 기출분석 빼고 다 들었어요. 이론 강의는 항상 인강을 들었고 1.7배속정도로 들으면서 2번 정도 반복해서 들었어요. 5월 문풀부터는 항상 직강을 들으면서 실전감각을 길렀어요. 제가 위상 강의를 선택했던 이유는 문제가 단순 암기식 문제가 아닌 적용력 응용력을 기를 수 있는 문제가 많아서 기출문제와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위상쌤 장지연쌤의 팀티칭 수업의 전반적인 수업방식이 암기위주가 아니라 이해를 먼저 시켜주셨기 때문에 암기식으로 공부하지 않는 저에게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저는 암기를 포기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보다 회독을 2배로 많이 했어요) 참고로 저는 초수 때 문 풀자료, 파이널자료 등 작년 자료도 올해 3번 이상 반복하면서 함께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항상 1인실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다 보니 일주일에 한번 학원 오는 날이 제일 행복했어요! 지연쌤 위상쌤도 보고, 친한 쌤들

이랑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하면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됐던 것 같아요.

재수 때 생활패턴은 3월부터 11월까지 공부시간이 거의 똑같았어요. 공부할 때는 집이 아닌 독서실을 이용하고 직강은 토요일만 나갔어요. 월-금 아침 8시부터 밤 11:30까지 공부했어요. 점심시간은 30분정도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고, 저녁은 집에 가서 먹고 쉬고 1시간 안으로 다시 독서실로 돌아왔어요. 토요일은 직강을 갔다 온 다음에 집에서 밥을 먹고, 저녁 7~8시까지 다시 독서실에 가서 그날 배운 부분을 복습하고 새벽한시까지 공부했어요. 일요일 낮에는 늦잠을 자고 점심 먹고 1~8시 7시간 독서실에서 공부했어요. 일요일 저녁은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고 주간 또는 월간 계획을 세우고 일찍 잤어요. 4월부터 11월 시험 전날까지 하루도 공부를 쉬는 날이 없었고, 월-토 하루에 순공부시간을 13시간 이상으로 잡고, 13시간 이하가 되는 날이 있으면 더 늦게 까지 공부하거나 일요일 저녁시간을 활용해서 채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초반에 공부시간을 많이 확보했었기 때문에 후반에 슬럼프 오고, 체력이 많이 약해졌을 때 더 운동시간을 늘리고, 병원도 자주다닐 수 있었어요.(누구든 시험이 다가오면 시간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3월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쌤들도 일주일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을 추천해요! 저는 재수 때 3월부터 빡세게 시작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도, 나중에 2월부터 공부할걸이라는 후회를 하게 되더라구요.ㅜㅜ)

▶1차 팁

▷ 답안 작성방법

먼저 한문제당 묻는 내용이 많으므로 문제에 번호를 잘 매겨야 해요! 그리고 문제지 빈 여백에 번호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요목화형식으로 빠르고 간결하게 적은 후 답안지에 줄글로 서술하며 문제를 풀었어요! 취지파악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연쌤께서 취지파악 하나씩 알려주실 때마다 단권화 노트 제일 앞장에 누적해서 기록했고, 단권화노트 회독할 때 같이 공부하면서 내용을 익혔어요. 그리고 한 문제에서 4가지를 물었다고 가정했을 때 4문장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했고, 4줄이지만 최대한 많은 내용을 쓰기위해 6줄 이상 썼던 것 같아요!

▷생활 관리

첫째,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공부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공부에 하나도 도움 되지 않는 SNS 같은 앱 지우고, 친구도 끊었어요. 2월에 친구들 몰아서 만나면서 일 년 후에 보자고 올해는 못만난다고 미리 말했어요. 남자친구도 한 달에 한번 독서실 휴무날인 마지막주 일요일에 공부한 후에 잠시 만났어요.(같은 취준생이어서 가능했어요!) 사람이 너무 그리울 때는 오히려 공감대 형성이 잘되는 같이 임용을 준비하는 몇몇 쌤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다른 친구들 만나면 부럽고 같이 놀고 싶고 그랬기 때문에 재수 때는 정말 친한 친구 제외하고는 아예 만나지 않았어요.

둘째, 자신이 공부 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을 확보해야 해요. 저는 아침 8시부터 밤11:30분까지 공부했어요. 순공부시간이 하루에 항상 13시간 이상이 되도록 3월부터 11월까지 제가 세운 계획에 맞춰서 꾸준히 공부했어요. 초반에는 적은시간을 공부했다가 점차 늘려가는 쌤들도 많지만 저는 작년에 시험전날에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하루만 더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쉬는 날 없이 공부했어요. 마지막주 일요일이 독서실 휴무라 월 1회는 쉬려고 했는데 3월에 한번 쉬어봤더니 쉬어도 쉬는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불안하더라구요. 그래서 4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쉬고 꾸준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매일 공부하면 흐름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공부효율이 매우 높아요!) 아플 때도 예외 없이 독서실에 갔고, 너무 두통이 심할 때는 집에 와서 약 먹고 두 시간 정도 푹 자고 다시 독서실 갔었어요. 명절 때도 평소대로 공부했어요. 후회남지 않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해요. 그렇지만 월-일 하루종일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일주일 중 하루는 오전에 충분히 잠을 보충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요일 낮에는 알람을 맞추지 않고 늦잠을 자고, 점심 먹고 1시에서 8시까지 공부하고 저녁에 필요한 자료나 프린트를 뽑고 주간 계획을 세우고 일찍 잤어요.

공부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쉬지 않고 공부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후회가 훨씬 덜 남아요. 흘러가는 시간은 똑같고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뒤에 결과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오로지합격만 바라보고 노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모두 포기하고 공부시간을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셋째, 공부에 도움 되는 습관을 형성해야 해요. 그 예로 핸드폰과 멀어지기, 독서실에서 엎드려서 잠자지 않기 등이 있어요. 공부에 도움 되지 않는 습관들이 쌓여서 합격을 막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공부에도움 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초반에 노력했어요. 먼저 독서실 밖에 있는 사물함을 하나 더 등록해서 독서실에 도착하자마자 기상스터디 인증샷 보내고 핸드폰을 사물함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쓸 때 없이 폰을 보면서 버리는 시간을 최소화 했어요. 그리고 독서실에서는 최대한 엎드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습관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한번 엎드려 자기 시작하면 피곤할 때마다 엎드리게 되기 때문에 독서실에서 자는 것은 최대한 자제했어요. 독서실에서 엎드려서 잔적은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을 때 5번 이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초수 때부터 잠이 올 때나 공부가 잘 안될 때, 행복 노트를 작성했어요. 시험 끝나면 뭐하고 싶은지, 왜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등등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들을 그 노트에 적어가면서 공부에다시 집중해야하는 이유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좋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실에서 나름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넷째, 자신에게 맞는 **스터디를 활용**해야합니다. 저는 저 혼자 공부하는 것이 편해서 일반스터디는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도 1차 때 공부스터디를 해본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u>기상스터디</u>는 제가 원하는 규칙을 정하고 인원을 모집해서 실시했는데 매우 효과적이었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침 8시까지 자리에 착석해서 타임스태프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정해진 지각과 결석 횟수가 초과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기프티콘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제가 스터디장이어서 그런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아침에 벌떡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같이 공부하는 동료가 있다고 생각하니 더 기분 좋게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6월 부터 시작했는데 3월부터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침잠이 많은 쌤들께 기상스터디 강추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또 다른 스터디는 교육과정 암기 스터디였는데, 원래 알고 지내던 친한 쌤이랑 직강 날에 30 분정도 일찍 와서 교육과정 빈칸 채워보는 스터디를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교육과정암기를 포기했던 초수때와 달리 재수때는 성취기준, 교수학습방법, 일반화된 지식, 목표까지 다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교육과정 암기문제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올해시험에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체계적인 계획

첫째, 체계적인 계획의 중요성이에요 저는 1차, 2차 둘다 계획을 정말 체계적으로 세웠어요. 먼저 2월 달에 놀 때, 월간계획과 주간계획의 큰 틀을 만들고, 어떤 수업을 들을지 리스트를 다 작성했어요. 그리고 3월부터는 일요일 저녁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주간 계획을 세우고, 월별 마지막주 일요일에는 다음 달 월간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인강 듣는 시간을 오전에 먼저 배치하고, 단권화노트를 2주에 한 번씩 회독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배치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모든 내용은 꼭 3번복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복습할 때는 당일, 일주일 뒤, 한 달 뒤를 계산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루에 제가 졸거나 지각하거나 등등 공부외의 시간으로 버린 시간이 있다면 5분이라도 무조건 계획표에체크해놓고 저녁에 더 늦게까지 공부하거나 주말에 더 공부를 해서 정해진 순공부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했어요. 전반적인 월별 공부계획은 장지연쌤께서 중요 시기에 한 번씩 말씀해주시는거 참고해서 계획 세웠어요~!



→주간계획 (요일별 공부시간위주로 큰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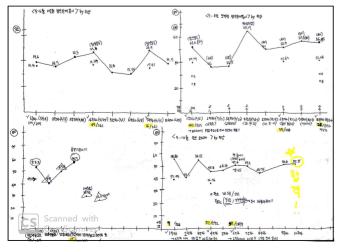
	(430)	°	WEEKLY	SCHEDULE ♥	(-20)	Q: 10 -	
공부 시간	(1:50)+10)+(1:30)(430)		9:00(+1)+(11:35)(+39)	(1:57) (+5) H2:00 (+60)			2:10 (-12)-(000)(+1)
11월 2주차	A 1	好 5 對	m 6 ÷	00 14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8 9 E	四 10
AM7:20-7:50	준비시간	· (7:20 기상/ 밥 먹고/ 씻고	/ 7:50 집에서 출발)/ 이동/	시간 (△→□ 7:55까지 독서		6:30기상/ 7:20-8:00이동시간	
8:00-9:00	1975 2854-	正教献 24年 東村 // 大村	기각	- 30000	TESUB @ BE	7:50 까지 학원 도착 교육학 명원 - >	~ Sleeping
9:00-10:00	1977 रिह द्वप्रन	- 18 mg 1 mg 18	- 352 SUB ® BF		-#-	HE AM	
10:00-11:00		2 以	419 mil 0	-15	2 均 20	· · · · ·	최대 10:30 기상 밥 먹고 준비하기
11:00-12:00	-		-# 1000 Re	DE GOE OF	इस्ट्रां राष्ट्र 🕀 छडंडा	전 8명	누장+27_♡ 12:00까지 독서실 도착
PM12:00-1:00	A47492 EN RE	@48 5-64 AE	-#	-		30.0	*YUL ZY!
LUNCH 1:00-2:00	정심		-4	अर्थ प्रक क्रिक्स		244 (D)	Service - Province
2:00-3:00			=	- इस्रें अक विदेश	2438 B + BE	544 A	234 SUP \$75
3:00-4:00		214	215 Hart @@ @B		-4	इमस ③	<u></u> ↓
4:00-5:00		13124 Ne		= 1		\$14€ €	
5:00-6:00				等 SUB B-田RE	713	વાલુકુષ્	+30
6:00-7:00	 	2/2, 5U8 (apray) (5)-(6)			368 208 10-10 BE	프턴트 이동시간	
7:00-8:00			Part SUBMITE			के अध	24 4 508 50 250
DINNER	会观	습제명	☆科	G 243	चित्रम	34	
8:00-9:00	我	25	원		5.8 0.8		1
9:00-10:00	-10 "	-20	プ 国科 508 ③ RE	-50 NEW	-10-1	25xx BE	"
10:00-11:00		· - 1 \		-"	*		合 243
13:00-12:00	Scannod	4th		-	*	="	APS APS
AM1.100-140	CamScan	/V I C I 인동시같(□+□ 집 도착)/	/ 사위하고 러블루와 잘 준 5	l Sleeping ~ (☆		2年270月 4分 (四一日)(250 村 圧仏)	

↳ 일일계획 (월간계획을 토대로 당일에 작성)

└월간계획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작성)

둘째, 이론을 최대한 많이 회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암기력이 굉장히약해요. 그래서 암기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냥 무조건 충분히 이해하고,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했어요. 백지쓰기는 해본 적 없어요. 그대신 단권화노트를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40-50번 정도 회독을 했어요. 4월에 완성된 서브노트를 5월부터 꾸준히 돌렸고, 처음에는 2주에 한번 회독하다가 시험 직전에는 2일에 한 번씩 회독했던 것 같아요. 이해한 뒤 여러 번 회독을 하면 머리에 오래 남아서 무조건 암기하는 것보다더 장기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기본이론이나, 문제풀이를 따로 복습하는 것보다는 문제풀이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옮긴 단권화노트를 충분히 회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셋째, 작은 목표에서 점점 큰 목표 세우기, 저는 학원 모의고사에 의미를 많이 뒀어요. 초수 때는 몰랐는데 재수 때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구나를 깨닫고 스스로 한 달에 한 번씩 목표를 조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점수와 등수를 그래프로 기록을 했어요. 물론 이렇게 모의고사에 의미를 두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번 달 모의고사에서는 몇점대, 몇등 할거다, 다음 달 모의고사에서는 몇점대, 몇등 할거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슬럼프 직전까지는 신기하게도 그 바람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가는 날이 좀 더 즐거웠고, 공부가 마냥 힘들지만은 않고 재밌었어요. 꼭 모의고사 점수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점점 키워간다면 긴 임용고시 공부기간동안 안일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목표한 바를 시험장에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1차와 2차 점수 목표한바와 근접하게 나왔어요.(참고로 초수 때 5월 모의고사에서 꼴등에서 2번째도 해본 적 있어요!ㅎㅎ 지금 점수가 안나오는 것은 정말 당연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노력하면 꼭 합격해요!)



→모의고사 그래프(점수, 등수 표시)

넷째는 체크리스트, 시나리오 만들기에요. 1차시험(전공, 교육학), 실기, 수업실연 등 모든 항목에 적용 가 능해요! 예를 들어 1차 시험 당일 시나리오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시험장에서 아침부터 시험이 끝날 때까지 시간대 별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어놓는 거에요. 또한 11:30분까지 답안지 첫째장 다 작성하기 이런 내용도 적어놓고, 심지어 필요한 준비물, 간식부터 쉬는 시간에 인공눈물 뿌리기 화장실 가기 등등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적어서 평상시 모의고사 볼 때 한 번씩 읽어보면서 실전에서의 느낌을 가지고 가려고 했 어요. 그리고 시계도 실제 시험시간을 맞추고 풀었던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초수때 시험지를 두 장 넘기는 대실수를 했기 때문에 학원에서 스테이플러로 찍힌 시험지에서 스테이플러 심을 다 떼어내고 신문지처 럼 넘기면서 문제를 풀었어요.(실제 시험지가 신문형식이어서 더 거대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일반 B4용지보다 조금 더 크고, 칼라프린트 자료는 그 시험지보다 조금 더 커요..! 초수생이면 당황할 수 있으니 큰 시험지 크 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또한 초수 때는 시험지에 키워드를 적지 않고 바로 답안지에 옮겨 적었었는데 재수 때는 시험지에 키워드를 적고 이를 토대로 옮겨 적는 연습을 했어요. 이런 것까지 다 시나리오에 키워드 위주로 빠르게 적어야한다고 적어놨어요. 이 시나리오는 1차 교육학 전공뿐만 아니라 2차에서도 똑같이 시나 리오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실기 인체소묘면 시험 시작 후 10분 안으로 큰 형태 잡기, 첫 번째 쉬는 시간 에 머리카락 완성하기 등등 시간대별로 적어 놓고 시험 전에 내가 잊지 않고 그림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에 대 해서 적어놨어요.(선생님께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 그리고 수업실연은 아예 대본 스크립트처럼 만들었어요. (교수학습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1차 공부 방법

첫째, 일단 **교육과정**은 깔끔하게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암기했어요! 자료사진 첨부할게요. 월-금 아침시간 10분을 활용해서 눈에 익히고 토요일 직강시작 30분전에 빈칸쓰기를 통해 외운 내용을 확인했어요. 따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보다는 자투리시간을 활용해서 녹음된 소리를 들으면서 익히려고 했어요.

Ī	저와	강자음 통한 인시은 자신과 환경, 세계하여 관계들 제답는 바람이 된다.	자신과 함정	[990]-0]] 차원과 주변 때문, 본경, 현상의 관계를 당생하여 나타낼 수 있다.	① 생대 확성하 자선 현상 등의 무제를 다룬 다위, 소설, 선준 기사 등을 고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하 주변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못 지고된다.	 자신과 취정된 관계 당세 당에. 	발생하기 발견하기													
শগ্ৰ	48	이데기는 느낌과 생각을 권합하고 정도 자용하는 도구로써 시와 문화를 형성된다.	이미지와 시다 문화	[20]01-02] 시자 문화 수에서 에미지터 다양한 권한 당시음 어래하고 분들할 수 있다.	② 기조, 상점, 조스터, 모바일 앱, 영상 등에서 비디가 전달 당시를 됐어보고 그 부위를 미교하여 이래하도록 게드란다.	이에지의 다양한 선당 당시 이제 및 활용 능력, 다양한 분야과 연제·용합 능력, 더슬과 관련된 지엄의 비해 능력														
	erat	미술은 다 작은 영역, 다양은 문서가 연제되어 있고, 살이 돈에 해결에 좋는한다.	다음과 다양한 분야	[95031-03] 미술과 다양한 분야가 서로 정말을 쓴 사례를 참을 수 있다. [95031-04]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응합 당연을 고색할 수 있다.	② 디호에 다양한 분야가 책용되기나 다양한 분야의 미술이 불통해 사례를 많아 집백했거나 20년 보고서를 하였다고록 기도한다. ① 발되지 군에 제본 방법을 통용하여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설요로 운할 방안을 발해보고 필요하여 계를 가능성을 찾아보고록 기도한다.	응을 평가한다. ② 주면 용명에 주되를 기울이는 때로, 전로 함께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미국이으로 문어하는 때로 등을 지속되으로 관심하는 제로등을 기속되으로 관심하여 평가됐다. ② 관심병, 받도 및 모든병, 연구보고자병	상도 자용하기 분운하기 모색하기 관련짓기													
				지승 관련 지점	[20]01-03]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작업이 공무와 부정은 이래함 수 있다.	⑤ 작가 작업성 항안, 작가 인터무, 이슬 관련 직접 제법 등을 통해 자신의 전요를 적각적으로 함께하도록 하여, 자음하기에 전로 체험 불문과 연결하여 계회된다.	등은 확용하여 평가한다.													
	64	무제를 다양한 빨리스로 발해, 상상, 무상하는 것은 표현의 모대가 된다.	주계와 의도	[9702-01] 교원 제2세 개통한 주제를 다양한 당시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표현 되고에 개발한 주세를 발명하는 데 생약, 상점, 온송 등의 다양한 당리를 끊음하고록 지도한다.															
	주를 계속수 주십나 아니다이에 취합된 유민소화 역시, 표면 예외자 유민 수업, 내리 등을 제외하고 조선하여 성찰하는 가결으로 이루어진다.			20 20 040	[9:002-02] 무세에 직접한 표현 화결을 계획할 수 있다. [9:002-03] 표현 제요와 용구, 방법의 목점을 여해하고 표현 과정을 생정한 수 있다.	② 주계에 제항한 개요와 용구, 방향, 표형 경우 등을 스크로 제휴대로의 개요한다. ② 표현 마리를 관검하면서 문제공을 스스로 인식하고 해외 당한을 공도한 제공한다.	① 포현의도에 직할한 쿠데 탑에 늘려, 표현 과정 제최 및 원진 능력, 조현 요소와 원리의 효과의 분을 늘려, 표현 에제의 선택 및 활용 능력 등을 평가한다.	반석47												
жet		주제나 아이디어에 비탈한 프립요소와 센터, 표현 제도와	주제나 아이디어에 비탈한 프립오스와 센터, 프센 제도와	주계나 아이디어에 비탈한 프립오스와 센터, 표현 제도와 용구, 방면, 배체 등을 제회하고 포엔하여 성질하는	주제나 아이디어에 개합한 프립요소와 원리, 표현 제요와	무게나 아이디어에 개발한 프립요소와 센터, 표현 제요와	무게나 아이디어에 개발한 프립요소와 센터, 표현 제요와	주제나 아이디어에 개발한 프립요소와 센터, 표현 제요와	주제나 아이디어에 비항함 프립요소와 원리, 표현 제요와	주제나 아이디어에 개발한 프립요소와 원리, 표현 제요와	주제나 아이디어에 개발한 프립요소와 센터, 표현 제요와	주제나 아이디어에 개발한 프립요소와 원리, 표현 제요와	주제나 아이디어에 개발한 프립요소와 원리, 표현 제요와	주제나 아이디어에 비항함 프립요소와 센터, 표현 제도와	주제나 아이디어에 비항함 조립요소와 센터, 표현 제도와	左劈 点点板 怪彩排 直路	[5대(0:04] 쿠세의 무성과 표현 미노에 직접한 소행 요소와 원칙은 당석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③ 표현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조영 요소와 된다를 다양하게 한국에 보고,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 활용하고록 지도한다.	② 요마리선 표함에 대한 작성, 다양한 표현을 시도하려는 노력, 스스로 계획하고 전설하는 매도 등을 여숙적으로 관설하여 평가졌다.	개최하기 성건하기 환용하기 표현하기
					24 44	[9902-05] 표현 에레의 작성을 알고 다양한 표현 초자동 단리함 수 있다. [9902-06] 주계와 되고에 의암한 표행 배체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경면, 있네, 영상 내세의 공유와 목장에 다른 표현 포과를 설립을 통해 함석하고록 기도함다. 강구세와 의도에 기찰한 표현 배계를 유럽을 통해 선택하고, 단천에 순의하고록 기도함다. 	① 설거 평가, 관설법, 자기 평가 및 문료 평가 보고서별, 프로젝스플레오램, 포트플리오텔 등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44	পৰ	미술 마음은 시대와 저에의 배경을 반영하고 있어 미술 자동에 대한 이해는 시대적 변성, 역약 등을 반당으로 자동의 부경을 부탁하는 평상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의 면전과 대학	[97003-01] 구너나라와 다른 나무 비술의 현실 과정을 여러할 수 있다. [97023-02] 미술의 시에서, 계약서, 사회적 제기를 설명할 수 있다.	① 다양한 세기 가요와 불장을 통하여 미술의 변원에 대해 어제되도록 기도한다. ② 다양한 시대, 지역, 사회에 제명의 작품을 관행 되게 다하고록 한다.	① 디슬의 변문 이제 날에, 작품이 해약한 해석 눈돼, 다음 용어와 귀석의 품을 날해, 면접 기계 날짜 집을 되었다. ② 더슬의 반사에 대한 문의 장도 된사기계에 구구적으로 참여한 배요.	설명하기 이배하기 해석하기 활용하기													
	गथ	미술 각동의 가치만단은 다양한 관점과 방향을 통용한	작동 예석	[2미(33·03] 미술 용이와 겨리를 활용하여 바뭄의 대응과 의미를 배경과 관련지어 폐역할 수 있다.	③ 권인 미술 용어나 계식을 필용한 말쓰기, 현조하기, 토론하기 공을 통해 작동의 의미를 시대해, 지역의, 사회에 배정과 관련에서 해석하도록 제도한다.	다양한 의견은 관중하는 제도 등은 지속적으로 관합하여 평가된다. ② 관설점, 법조 및 모목점, 감상단,	전시 기회하기													
		비행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작중 본시	[2미(33-04] 다음 짜증, 관광자, 전시 장소 등의 목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당식의 변세를 기회할 수 있다.	② 조나나 전략은 통해 전시회의 다양한 방식은 이해하고 막당 또는 학교 전시회를 기회하도록 기도한다.	연구 보고사업, 서운영 및 논운영 경사업 등을 불운하여 평가된다.														

Г	지각	단자을 통한 인식으 자신과 환경, 세계하리 관계들 개만는 바람이 된다.	자신와 세계	[15미(0-0] 가전에 내면세계를 인시하고 외부 세계와 고파를 이를 수 있는 장단을 모여할 수 있다.	① 제휴인, 아인되로, 개인다. 및 대한스 등 다양한 생범을 통용하여 제안하 대한 세계를 여러하였는 지깃한다. 전한 시계는 기계를 보는 이 기계를 받는 이 기계를				
শগ্ন	此學	어디지는 느낌과 생작을 선당하고 상로 작용하는 교무로서 시작 문화를 행성한다.	시작 문화되 가치와 역할	[12대(n-02] 생활당리라 사고장식에 영향을 주는 시작 문화에 가치와 역할은 이에라고 모든할 수 있다.	② 시작문화의 사례를 조사, 항로, 설명, 도운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가치와 역할을 이해하고와 지고한다.	대술을 자신의 진보와 연세하는 능력	인식하 모객하		
	প্ৰ	비술은 다 학술 일억, 다양한 분야와 연제되어 있고,	서술을 중한 사회 중이	[12여(0-00] 현대의 자리 현장과 문제를 이해하고 대충을 통한 참여 당신을 모세한 수 있다.	③ 협력 학습을 통해 현대의 사려의 현상과 문제를 더슬과 관련지어 배경하는 당단을 찾아보고록 지모된다.	무현과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배경하여는 배도, 자신의 진토막 여술을 선계하여는 배도 문을 지속되으로 관광하여 평가받다.	문어의 인계와		
	es.	살의 문제 배경에 활용된다.	기업 세계부 기업	[12미(O-O4] 다양한 개합에서 미술이 활용 사제를 찾아 자신의 전도와 연계할 수 있다.	③ 가신의 건도와 기술을 관련기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참석합으로써 직접에 대한 이배를 좀 더 확장하도록 지도한다.	③ 관용명, 발표 및 보유명, 연구보고의명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10.0	주제를 다양한 당시으로 함께, 상상, 구성하는 것은 표현의 모대가 된다.	주세의 화상	[12대(C-C)] 다양한 방상 방법을 활용하여 세요은 중제를 받세한 수 있다.	① 고매인스보딩, 마인크림, 제끄러스보 등을 활용하여 세요은 주세를 함세하고두 제고한다.	① 제공순 주세 함세 함께,			
	제작 공연유소와 원리, 3 용구, 당형, 네제 : 제외라고 표현하여	주제나 아이디어에 의합된 공립요소와 원리, 표현 제요와	조명 요소유 설리의 중요	[12디CO-CC] 조형 호소부 원리를 다당하게 홍용하여 당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② 조텔 요소와 원리를 생모는 알디스로 설립, 슬픔하도와 겨드웠다.	교원 오스와 원리의 용용 능력, 표현 대체의 용항 능력, 제작 과정과 권자에 대한 공항이 본의 능력 등을 평가본다.	244		
混竹			주제나 아이디어에 직접한 공명요소와 원리, 표현 제표와	주세나 아이디어에 의합된 공립요소와 원리, 표현 세요와	주제나 아이디어에 의합한 프림요소와 원리, 표현 제요의	조번 네셔지 용합	[12:00:0] 여러 가여 표현 배제의 조합이나 응용·확장은 통해 새로운 표현 조하를 반대할 수 있다.	① 세고운 관점에서 표현 대체를 활용한 다양한 정도의 에서 자중증을 제시한으로써 세도운 보면 효과를 통제하고가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② 세도운 표명을 시오바이는 실험이 제도, 실험 변과를 변명하려는 노력 등을 지속되고도 관심하여 생가한다.
		제회하고 표현하여 정말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비하고 표현하여 성용하는	[12이CC-04] 주제와 표현 위조, 제요와 표현 명령, 데레, 표현 유형, 절화 등을 문화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 [12이CC-05] 유문에 대한 생활을 마장으로 작용을 수계하거나 다음 작은 제회에 변경한 수 있다.	 ○ 아름 개최시, 제속 차성 점점 에브레스트 등을 불통하여 법상, 표현 에세리 전력, 제속 차성 및 제속 등 전 개설을 개설하고요요 임교에소와 개조한다. ○ 생설의 점차를 문항하고요 역 불용하는 것이 자신의 발상과 세약 상태를 받았다가는 앱 도움이 있다는 것을 비해하고록 개조한다. 	② 설기 평가, 참설템, 자기 평가 및 등표 평가 보고서별, 보고세스플리션로, 모보플레호텔 문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ৰ	더슬차등은 시대의 지역의 배경을 단영하고 있어 더슬 각종에 대한 서래는 시대의 변원, 대학 등을 다툼으로 작동의 목장을 과작하는	더술 문화의 교문	[120100-10] 역사, 경제, 경제, 자회·문화의 예약에 따른 역술 문화의 다양성을 이제할 수 있다. [15400-01] 시대와 계약에 따른 이술의 교육와 성조 관원성을 생명할 수 있다.	① 다양한 시대, 지역, 양리, 변화, 등로 등을 고려하여 세계대 다음 문화를 만큼 되게 생활하고는 지진한다. 신 고도의법 등학문을 중중하여 다음 모르 때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교사하고 충돌하여 발표하고를 지조한다.	① 디슨 문화의 다양성 이제 함께, 이승교를 및 생호관원성 여행는데, 이번에 다양한 관계 분운 및 가의 만든 높이 미술 자동에 대한 논리의 사슬 눈에 문을 뭔가한다.	설명하		
2.8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더슬 작품의 가의관단은	사중 네석	[12미(0-00] 마술 짜증 배쟁이 다양한 관객을 받고 매용 분용하여 객존의 가서운 반단함 수 있다.	① 정시, 구에, 55만, 여사로 배경, 문화국 가의 등 다양한 때문 경영을 어려라고, 이름의 가의를 관단하는 데 활용되도록 지도한다.	② 다양한 미술 문화를 수름하는 개항이 배도, 미원에 경구적으로 참여하는 배도, 다양한 세진을 증상하는 배도 등을 계속하므로 관광하여 평가졌다.	이래차 불문화 관단하		
	비행	1명 다양한 관점과 명명을 활용한 대원 폭장으로 이루어진다.		[[]이다(G-G)] 예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권해를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논대비으로 서울을 수 있다.	③ 선문 가다, 전혀렛, 서비 등을 활용하여 관련 가료와 정보를 문식하고, 이를 비전에 근거로 살아 설득히 전계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록 기모받다.	② 관광명, 왕조 또 모든명, 감상문, 연구보고서명, 사슬링 및 논슬링 검사명 공을 통용하여 평가받다.			

↳ 교육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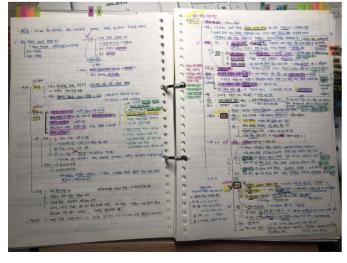
둘째, 당일 복습 정말 정말 중요해요. 학원직강을 들었으면 그 당일에 바로 복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초수 때는 학원 수업 때 들은 내용을 2-3일 지나서 복습했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기억이 많이 남지 않는 상태에서 복습하므로 복습시간도 1.5배 이상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에 직강을 듣고 나면 학원에 남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갔어요. 집 가서 저녁을 먹고 조금 쉬다가 바로 독서실을 가고 토요일은 새벽 1시까지 공부했어요. 다음날 일요일이 유일한 늦잠데이였기 때문에 토요일에 복습을 하며 최대한 늦게 자고 다음날 늦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주에 배운 내용을 일주일 후인 다음주 토요일에 당일에 배운 내용과 함께 복습을 했고, 한 달 뒤에 다시 복습을 했어요. 즉, 이렇게 하면, 토요일에는 당일, 전주에 배운 내용, 한 달 전에 공부한 내용을 함께 복습하게 돼요. 그리고 최초 복습시, 단권화노트에 중요한 부분을 적어두며 복습하기 때문에 단권화 노트를 회독할 때 반복학습으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저장이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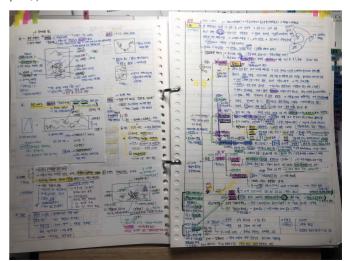
셋째, **단권화** 정말정말 중요해요.(서브노트와는 달라요!) 우리가 공부해야하는 내용이 정말 산더미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어떤 항목에 속하는지 모른 채로 조각조각의 정보만 계속 보는 것은 정말 효율이 떨어지는 공부에요. 수기 형식이든, 기존의 기본이론서나 심화이론서를 활용하든 무조건 자신만의 단권화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심화이론서를 단면으로 복사하고 기출분석, 교과서분석, 문풀 등의 강의 시간에 들은 내용이나 개인적으로 교과서 또는 필독서를 볼 때, 해당하는 내용이 적혀있는 페이지 옆면 여백에 내가 알아야할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두는 거에요. 그리고 계속 누적하면서 나만의 자료를 시험 직전까지 충분히 회독한 다면 책의 모든 내용이 내 머릿속에 요목화 되어서 저절로 정리가 돼요. 오개념이 있더라도 예전에 내가 써놓은 내용과 비교해 보면 더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단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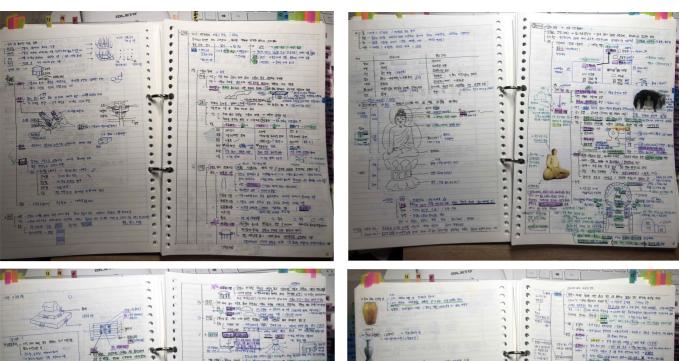
단권화 방법은 기본서나 심화프린트에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수기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기본서는 양면이니, 심화프린트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려요. 일단 초수라면 시간이 없으니 절대 수기로 직접 만들지는 마시고. 양면으로 인쇄된 심화프린트에 A4 용지를 사이사이 끼워 넣거나, 단면으로 인쇄된 심화프린트를 활용해서 단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수 이상이라면 직접 기본서나 심화서를 보고 기본 틀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4월에 정말 싱숭생숭해서 공부가 잘 안될 때, 종이를 뺏다 꼈다 할 수 있는 노트를 구매한 후, 기본이론 심화이론 인강을 한 번에 들으면서 공부한 내용을 한면에 바로바로 요목화해서 정리하면서 단권화노트의 기본 틀을 만들었어요. 후에 왼쪽 빈 여백에 오른쪽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을 계속 누적해서 정리하면서 단권화 노트의 양을 늘려나갔고, 이 노트를 끊임없이 회독했어요. (동미사 한미사 중요도판은 따로 프린트해서 이론, 문풀 수업때 배운 내용을 적고 단권화노트와 함께 계속 복습했어요.) 처음 틀을 만들 때, 직접 쓰면서 꼼꼼히 내용을 보니까 실기하면서 잊혀졌던 이론도 다시 확실히 머리에 잘 들어왔고, 생각보다 시간도 덜 걸려서 틀 만드는데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번 만들어진 단권화노트는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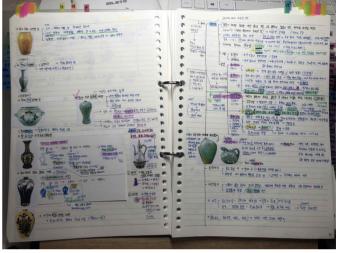
또한 단권화가 완료되면 파트별로 세부적으로 인덱싱 작업을 해야 해요! 그래야 원하는 페이지를 빨리빨리 찾아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어요. 저는 단권화 노트를 1,2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론서 상, 하 내용으로 구분 했고, 1은 1-8번까지 비슷한 양으로 나눠서 표시했고, 2는 9-16번까지 비슷한 양으로 나눠서 표시했어요~! 그래서 복습할 때 초반에 세세하게 복습할 때는 1-2복습, 3-4복습 등 하루에 2개를 보도록 계획을 세웠고, 후반으로 갈수록 1-4복습, 5-8복습 등 하루에 4개를 보도록 계획을 세웠어요. 11월에는 1-8복습, 9-16복습 하루에 한권을 복습할 수 있도록 계획 했어요. 추가로 1순위로 중요한 것은 노랑형광펜, 2순위는 분홍형광펜, 중요한데 내가 자주 까먹는 내용은 연두형광펜, 내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는 보라형광펜으로 구분해서 표시했어요! 또한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은 1순위-노랑인덱스, 2순위-분홍인덱스, 3순위-주황인덱스, 4순위-연두인덱스로 따로 표시해두고, 시간이 남는 날에는 1-2순위만 골라서 복습하거나 1-4순위위주로 복습하는 등중요한 내용을 더 자주 보기 위해서 단권화 노트 오른쪽 상단에 표시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시험 한 달 전에는 단권화노트를 기반으로 **요목화노트**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저는 쓰면서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스트레스 없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전공은 40장 단면으로 요약했고, 교육학은 미리 요목화 되어있는 종이 15장에 중요 세부내용을 깨알같이 적어서 요목화 했어요. 이렇게 요목화해 놓으면 시험 전에 하루 만에 전공과 교육학을 동시에 돌리고도 시간이 조금 남아요.(사실 시험당일 쉬는 시간에 볼자료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시험당일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가야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 남짓 돼요. 정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두꺼운 책을 가져가면 조금만 보다가 끝나버려서 오히려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얇은 정리본을 들고 가면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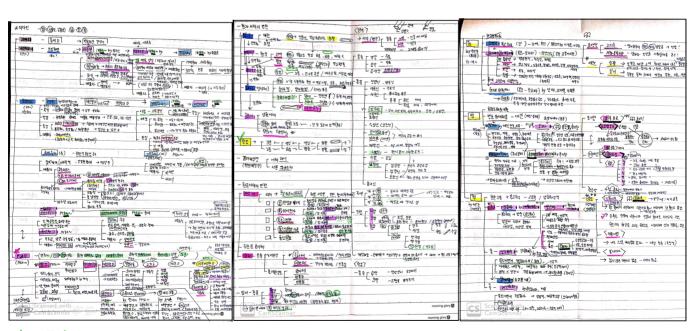








↳ 단권화 노트



↳ 요목화 노트

넷째, 청킹입니다. 초수 때는 청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재수 때 우연히 듣게 된 교육학강사가 우연히 청킹을 강조해서 자연스럽게 청킹하는 습관이 들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전공에도 적용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방법은 정말 전체점수를 5점정도 올려주는 방식 이었다고 생각해요!(단권화는 10점!) 단권화 노트에 청킹으로 앞글자를 동그라미로 표시해놓고 회독을 여러 번 하니 저절로 머릿속에 남더라구요. 예를 들어창의적 문제해결법의 순서를 '문인 아이디어 탐 정 적' 이라고 외우면 당황해서 잊어버리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빈칸 넣기 1점 점수는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학 스타인호프와 오웬스의 학교문화유형 명칭도 따로 암기한 적이 없는데 호프하면 '기기공공'이라는 청킹이 기억에 남아서 기계문화를 쓸 수 있었어요. 청킹하는 습관을 기르면 숨어있는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자투리 시간 최대로 활용해서 공부하기, 저는 집에서 5분 거리 독서실을 다녔고, 점심때는 도시락을 어머니께서 싸주셔서 밥시간을 30분 이내로 절약했고, 저녁에는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또한 일주일에두 세번은 헬스장에서 간단한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투리시간 모두 사실 간접적으로 공부했던 것같아요. 밥시간, 집에서 독서실까지 왕복 10분, 운동시간, 심지어 샤워 시간 등 작은 자투리시간도 모두 활용해서 공부를 했어요. 교육학 요점 정리해주는 부분을 따로 녹음을 해서 듣거나, 교육과정을 제 목소리로 녹음해서 들었어요. 교육과정은 100프로 암기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시험 디데이 50일 이었을때도 다 암기하지 못한 상태여서, 미창, 미감부분은 만들어진 노래로 암기했어요. 결국 이번 시험에서 교육과정 암기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초수 때는 포기했던 교육과정을 재수 때도 포기한다면 합격을 포기하는거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암기했어요. 꼭 교육과정 암기가 아니더라도 자투리시간을 활용해서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요!

▷체력 관리 · 멘탈관리

첫째, 운동을 통한 체력관리에요. 저는 운동을 정말 싫어했어요. 평소에 '운동을 하고 더 오래 사는 것보다 운동을 안하고 몇 년 일찍 죽을래!' 라는 말을 할 정도 였어요. 그래서 초수 때는 운동을 한 적이 없었지만 마지막에는 밥을 먹고 바로 책상에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지더라구요. 그래서 재수 때는 운동의 필요 성을 느끼고 일주일에 두 번 삼십분 정도 런닝머신을 뛰었어요. 근데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15시간 이상 되 다 보니, 운동량이 부족했고, 9월 지나서는 병이 나기 시작 하더라구요. 이때가 저에게 굉장한 슬럼프였는 데,(가을까지 잘 버텨주길래 저에게는 슬럼프가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10월에 한번 심한 감기를 앓고 나 서 극심한 소화불량과 스트레스 우울증이 모두 동반되어서 모의고사 점수도 10점 이상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것은 시험이 얼마 안남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원인 모를 두통이 2주 동안 지속됐는데 병원을 가면 다 열이 없다고 했어요. 의사쌤이 화병이라고 하셨는데.. 이 두통 때문에 공부가 집 중이 하나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 였어요. 근데 제가 이 슬럼프를 극복한 방법이 바로 운동이었어 요.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 아닌, 실외에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하는 운동! 일주일에 네 다섯 번 정도 저녁시간에 저녁 먹고 어머니랑 아파트 근처를 조깅하기 시작했어요. 1인실 독서실 방 한 칸에 갇혀서 매일 공부하다보니까 산소가 뇌에 공급이 잘 안됐었는지, 밖의 공기를 운동하면서 마시게 되니까 신기하게도 저절 로 두통이 없어졌어요. 저녁에 운동을 해야 그날은 책상에 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하기 위해서 기를 쓰 고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의원 침도 맞고 한약도 먹으면서 초반보다 마지막에 더 운동시간 많이 확보하면서 체력관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장기전인 임용에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모두 꼭 체력관리 제대로 하면서 공부하셔야 해요 ㅜㅜ

둘째, 시험불안 극복방안을 마련해서 멘탈을 관리해야 해요. 저는 유리멘탈에다가 시험불안이 극도로 심했기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에 의지했어요. 불면증에 도움 되는 스팀안대, 아로마 스프레이, 잠 잘 오는 베개, 생체리듬 조절해주는 의료목걸이, 소원 팔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총 동원해서 플라시보 효과처럼 믿고 의지했던 것 같아요. 또한 시험 한 달 전부터 심신이 불안정할 때는 청심환을 먹었고, 한의원에서 소화 잘되는 침, 불면증에 도움 되는 침도 맞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 전날에는 다행히 3시간 정도 자고 시험 보러갈 수 있었어요!ㅎㅎ(지금까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1시간 이상 자본적이 없어요ㅠ) 또한 저는 마지막 직강 날에 지연쌤 위상쌤께 악수해달라고 부탁했어요!(초수 때 악수 못해서 후회했던 기억이 있었어요ㅎㅎ) 시험 당일에 정말 한문제 한문제 풀 때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난이도가 높아서 벌벌 떨면서 풀었는데 멘붕을 때마다 아니야 쌤들이 나 합격한다고 했어 괜찮아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펜을 다잡았던 것같아요. (자신이 시험불안이 심하다면 미리 자신에게 맞는 여러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지 시험 전날이나 시험 당일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시험 전날에 잠 잘 오게 해주는 방법 중 하나가 시험전날 밤에 충분히 운동해주는 것이에요! 시험 전날이라고 평소와 다르게 너무 일찍 공부 끝내고 일찍 자려고하면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시험 전날에도 저녁 먹고 40분 운동하고 밤11시까지 공부하고 12시 반에 침대에 누웠어요.)

▶2차 생활패턴

2차는 체력싸움이에요 저는 사실 1차 때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우울증을 동반한 슬럼프가 크게 와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2차보다는 1차가 5배정도 힘들었었는데, 보통 다른 쌤들은 2차가 1차보다 5배로 힘들다고 말해요ㅎㅎ

저는 토요일에 1차 시험을 보고 일요일 하루 쉬고 바로 월요일부터 <u>실기학원</u> 나갔어요. 전체적인 스케쥴은 실기는 초수 때와 재수 때 모두 주 6일 나갔어요. 스터디는 총3개를 꾸준히 했는데 <u>수업실연과 면접스터디를</u> 일주일에 2회씩 했고, 스터디 과제가 너무 많을 때는 1-2주에 한번 수요일에 쉬었던 것 같아요. 월화목금 아침 10-12시까지는 스터디 하는 시간이었어요. 실기 끝나고 새벽시간은 스터디 과제하는 시간이었고, 일주일에 반은 3-4시간 자고, 나머지 반은 7-8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2차 때는 친한 쌤들이랑 밥도 같이 먹고 말도 많이 해서 정신적으로는 괜찮았는데, 잠이 너무 부족해서 신체적으로 체력부족으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7시 반에 3-40분정도 <u>면접레시피와 시책 읽는 전화스터디</u>를 꾸준히 했어요. 2차는 '스터디'가 필수이자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쌤들을 많이 만나서 2차 공부를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덜 받고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지연쌤 2차 강의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초수때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재수 때는 고민하다가 듣지 않았지만, 그때 공부한 자료와 선생님의 피드백을 모두 기록했었기에 재수 때도 자료를 토대로 복습하면서 기본 틀을 잡았던 것 같아요. (면접 수업실연 지도안작성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가르쳐주세요!) 특히 다른 쌤들께서 수업실연하시는 것을 보고 선생님의 피드백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아참 그리고 2차는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실기 면접 실연 모두 모든 조건을 꼭 숙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해요. 저는 시험장에서 조건을 다 잘 지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하나씩 못 지킨 것이 생각나더라구요. 그리고 시간 분배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면접이랑 실연할 때 둘다 10초 남기고 딱 끝냈어요.

2차준비 기간 동안은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차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스터디도 여러 개여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 계획은 필수인 것 같아요! 2차는 실기, 면접, 실연 순으로 설명할게요.



MONTHLY SCHEDULF ▼ **순행 병향?**▼ 문해 공유 → <u>구</u>난시권(구산형 2 → 15분)

▼ 단행 (구산한 2 구류전하 2 → 10분) + <u>ਸ</u>ਲਕੀ

▼ 진행 (20**.9**보투 + 보내)

▼ 다음 다더 로제 | 전략 분성 (파이란) ● 변형 소송(리 - 환경 10-12시 (각성현2수원원 2) ● 변호에 개출 - 문제 환기(리 - 화이원) 수(12) (토대) 밝다 ● (각형 1) - 변화 환기(리 - 화이원 수(12) (토대) 밝다 ● 10 년에 시 - 화대) 수(12) (토대) 밝다 등 10-12시 (각성현2수원원 2) ♥ 2020 시벨 ♡ 행환 과 (개연절조) **S 1_** 진행 방향 정기~ PART02-03 UNE Q3(44) → ₩E Q4 (821) → 병도 Q2(만명)→/ 구상2+3당2(파생 구남2+?당2(<u>141)달</u>+기울 Aleman Troop (3,4%) (部點2成1,2重) S5 PART 66-67 ₩E Q 1(44) → 구분2+국당2(114개년+개봉 시작 2019,202(11년) 구상2+곡당2(박4당+기 UHE Q 8 / (121) WE 0.6 (64) → 시책 2이9, 2026@5 2020 ②요약 2020 ① 호박 (5,6월) (7-84) PART 68-09 PART 10-11 생도 및 12(변화) → 子は2十年日2 (240月かえ 구상2+ 국당2(401성+71분) 시백2019,2020 10 50 2020 120 2020 8 80 (9-10%) * 유세용 안 エにサーマルモッシュ 5전 해당 PART 공부 + 기통 함에 공부 - 문제 요당한 작성,판트 구성 1 __ 2명하는 __ 2 ___ 2명하는 __ **→**∰ PART 01- 11385 1585-구당2+국당2(파이탈+제) 시54,2019,2620 #로하 A4#201 해당 시작 공부 +호약정의 (표) 3892-386 7상형 2 × 독당한다 2- →14 2020 B Ret - 파이널 문제 + 기출 (파시널문제 복찰 때

↳ 2차 계획표

↳ 면접스터디 계획표

▶실기

▷인체소묘: 실기는 초수 때 다녔던 노량진에 있는 실기학원을 갔어요. 저는 입시 때 인체수채화로 입시를 했었기 때문에 인체 형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도움이 됐었어요. 인체소묘에서는 형태가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묘사력이 좋아도 형태가 나가면 형태가 완고한 그림에 밀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모델이 아닌 사진으로 그림을 그릴 때도 모델을 보고 그릴 때처럼 머리 크기를 연필로 재서 실전처럼 비례 맞추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화면에서 인체가 잘리지 않고, 세로 가로 1cm정도만 남게 자신감 있게 꽉 차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부분에 있어서는 명암대비를 확실하게 주고, 멀어지는 부분은 풀어지는 강약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공기원근법 활용하기!) 세부묘사는 그리면서 점점 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추세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번 시험에 스튤에 기대어 바닥에 앉은 사람이 나왔잖아요. 요즘 임용이 1차도 2차도 기존의 틀에서 많이 변화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딱 2020학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기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데 의자에 앉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세 많이 연습해보고 가셔야할 것 같아요. 심상표현 재료도 다양한 재료 많이 써보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거에요. 저는 심상표현에 전봇대랑 깃털을 주로 연습했었는데 마침 공간표현이 나와서 두 개다 같이 그리고 나왔어요. 파스텔도 시험 직전에 써봤던 재료라서 친근했어요. 그런데 시험 당일이 되니까 긴장되고 손이 굳어서 평소보다 시간이 좀 모자르더라구요. 사람이 바닥에 앉은 자세라서 화면에 크게 들어가서 그릴 면적도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도 많이 해보셔야할 것 같아요. 아참 그리고 이번에 서울 재료제한이 풀렸잖아요. 저는 <2B,6B는 미쯔비시, 4B는 톰보우 모노100> 사용했었어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다르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은 4B로 하고, 머리카락 검은 의류 등은 6B 사용하고, 얼굴 세부 손, 발은 중간단계에서부터는 2B로 마무리했어요.

시험장 상황은 대기실에 모두 모여서 관리번호를 뽑아요. 시험시작 15분전부터 모둠별로 강당으로 재료를 들고 이동해요. 모델 한 명당 10-11명이서 봤고, 모델과 2M거리정도 떨어져있었어요. 그리고 시험시작하기 5분? 전에 재료와 조건이 적힌 종이를 주시는데 조건 꼭 꼼꼼히 읽으셔야 해요! 모델은 초반에 형태 잡을 때만 25분 섰던 것 같아요. 포니테일로 머리 묶은 아이보리 플리스 집업과 갈색 치마레깅스을 입은 20대 젊은 여자가모델로 나왔고, 플리스와 가죽 스튤의 질감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과 배경에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 디자인은 저는 저에게 맞는 패턴을 하나 받아서 계속 연습했었어요. 초수 때와는 다른 패턴이었는데 패턴이랑 친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한 주제로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최대한 밝고 환하게 그리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배경도 무지개 색으로 깔고 귀여운 캐릭터도 넣고 호감형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항상 밝게 그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 수묵담채기법과 풍자화 나왔을 때도 해봤던 주제는 아니었지만 그렸던 그림들을 떠올리면서 적절하게 활용했던 것 같아요. 디자인은 소묘보다 더욱 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그림을 완성하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다른 분들도 주어진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그리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나만의 패턴이 있는 게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제가 잘 드러났는지에요!) 추가로 핀터레스트 앱 많이 활용해서 다양한 자료사진 많이 찾아 봤었어요~!

시험장 상황은 소묘를 하고, 점심시간을 가진 후 시험시작 20분? 전에 시험실로 모둠별로 재료를 들고 이동합니다. 교실에서 시험을 보는데 개인당 책상 2개가 붙어있고, 통로 쪽 책상 옆에는 이젤이 세워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 그림을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 했어요! 그리고 역시 시험시작하기 5분 전쯤에 미리 조건이 적힌 문제지를 나눠줘요. 문제는 성찰을 표현하는 것이 주제였고, 참고 도판은 김홍도의 씨름도와 핸드폰을 하는 사람들이 핸드폰에 간혀있는 풍자화가 나왔어요. 그리고 수묵담채 기법을 활용해야했으며, 재료는 한지, 포스터 칼라(흰,검,빨,파,노), 붓펜이 나왔어요. 눈으로 구상을 하다가 시험이 시작하면 그림을 그리는데 초반 30분은 일어서서 그리는 게 제한되어있어서 앉아서 스케치하는 연습도 미리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시험장에서 그려봤던 그림 3장 정도를 혼합해서 30분 안에 스케치했었어요. (스케치 시간은 최대 30분 이상을 넘기면 안돼요.)

▶면접

면접스터디는 초수 때는 하지 않았지만 재수 때는 타교과 쌤들이랑 했어요. 미술쌤들은 실기시간이 많아서면접 공부시간이 현저히 부족히니 무조건 타교과 쌤들이랑 면접 준비하시는 것 추천해요. 원래 말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잘하는 편은 아닌데 스터디를 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보니 나중에는 초반보다 훨씬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스터디할 때 답변 내용뿐 아니라 태도 등 다방면으로 피드백해주는 것이좋아요~!)

스터디 방식은 먼저 1차 발표 전까지는 4명이서 면접레시피를 단원별로 나눠서 뒷부분에 파이널 문제를 토대로 구상형2문항, 즉답형1문항, 추가질문 2문항을 각자 실제시험 양식처럼 워드로 문제지와 예상 답안지를 작성해오고, 실제로 만나서 사다리타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문제를 12분 동안(실전에서는 15분동안 구상) 동시에 구상해보고 바로 실전처럼 15분 말해보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피드백했어요. 또한 따로 면접밴드를 만들어서 기출위주로 일주일에 4명이서 한 문제씩 돌아가면서 문제 올리고 모두 다음날까지 모두 답변 달고, 다른 사람 답변에 피드백 하는 것도 했어요.(피드백시에는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각자 피드백내용이 적힌 포스트잇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복습의 효율성을 높였어요.) 또한 2020시책을 요약정리 했는데 맡은 파트를 표형식으로 요약해서 나중에 최종 취합하고, 스터디 마지막 날에 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은 부분 위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3시간 정도 가졌고. 이를 녹음해서 틈날 때 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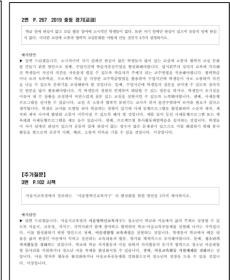
1차 발표이후 스터디방식은 1차합격자 두 명에서 한분을 더 충원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했고. 이때는 면접레시피의 기출문제 위주로 했어요. 그리고 추가질문은 시책으로 항상 문제를 내서 시책도 함께 계속 공부할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깨알 팁은 실기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사실 면접레시피와 시책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지치잖아요. 근데 봐야할 건 너무 많고, 이럴 때 제일 스트레스 없이 볼 수 있는 것이 유튜브였어요. 서울특별시 교육청 유튜브나 지금서울교육, 서울교육나침판 등을 활용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교육트렌드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행복한 교육은 안봤어요!) 저는 이걸 마지막에 시도했어서 굉장히 아쉬웠었어요. 실기 이동시간에 교육청 유튜브 보면 시책 내용도 줄글로만 읽을 때보다 훨씬 더빨리 친숙해져요. 그리고 시책 내용을 토대로 대화 나누는 전화스터디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됐구요! 시책은 최대한 많이 보면서 친숙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 면접문제가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등 암기식의 문제보다는 특정 상황에서 교사가 해줄 수 있는 조언, 교직관 등의 문제 비중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사실 시험 당일에 조금 당황했었어요. 면접레시피 위주로 내용을 습득하는데도 매우 시간이 부족했어서 교직관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많이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면접이 끝났을 때 너무 아쉬웠고, 대답도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너무 떨었고, 많이 못봤다고 생각해서 최저점도 찾아보고 잠도 설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를 보니 2차에서 면접점수가 제일 덜 깎였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놀랐는데 쌤들도 스스로 예상한 점수가 꼭 그대로 나오지는 않을 수 있으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고 편안하고 차분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장 상황은 대기실에서 관리번호 추첨 후에, 순서대로 책상에 앉고 한 교실에 두 명씩 구상실로 갑니다. 구상실에는 벽에 붙어져서 놓여있는 두 개의 책상이 있는데(서로 떨어져 있어요.) 책상 위 검정펜과 빨간펜만을 사용하여 15분 동안 구상형 1번과 2번 문제를 구상합니다. 구상이 끝나면 옆 교실인 면접실로 들어가게 되고 면접관 3분이 책상에 앉아계시고 그 앞에 4-5M정도 되는 거리에 마주보고 책상에 앉게 됩니다. 인사하고 앉고 답변을 시작하는 순간 15:00 카운트다운시계가 함께 시작됩니다.(매번 변화가능성 있음) 시간 3분 남았을 때 푯말을 들어서 알려주십니다. 면접 답변이 끝나면 인사하고 퇴실합니다.

그리고 복장은 일요일에 하루 날을 잡아서 직접 사러 갔었어요! 베이지에 가까운 연갈색 체크 치마정장에 카라 없는 크림색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스타킹은 검스, 구두는 밤색 구두 신고 반묶음 하고 화장 최대한 연하게 하고 면접 보러 갔어요. 면접은 대부분 70%가 블랙의상 많이 입더라구요. 근데 저는 면접도 밝게 입으면 좋은 것 같아서 최대한 밝게 입는 것을 추천 드려요!







↳ 면접스터디 문제지 답안지 양식

	2020 서울시 교육시계
	1.미래를 준비하는 핵심교육
	1-1.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교실역명을 이루어내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면성 운영지원
	○ '교육과정-수업-평가' 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육과정 편성 운영
	○ 성취기준 기반 교육과경·수업·평가 선순환 시스템 구축
1-1-1	○ 교육과정·수업·평가 핵신을 위한 각종 지무인수 운영
서울학생 미래역량 한양을	○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수업-전기' 일관성을 위한 자료개방
위한 교육과정 수업 평가 핵신	수입나눔 문화 화산 및 수업적인 역량 강화 지원
: 자성 감성 인성을 기르는데	○ 수업 평가·나눔 교사단 운영 : 학교 간 수업・평가 나눔 교사단 공동연구 및 수업나를
필요한 지식 가능 배도 가의	 수업교정 전문가 양성 및 수업교정 전문가 활용 수업성찰과 수업혁신 문화 화석
능력과 의자의 용제로 다큐면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 약단	○ 더불어 수입나눔 : 서로 성장 교실혁명 워크숍 개최 및 수업혁신 사례나눔
HISOS, I 4lott attrivit, ALS.	○ 수입나눔카페 구축 :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수염 나눔·소동 공간
	○ 서울 BEOC 플랫폼 우수 온라인 강화 및 민간 우수 학습 콘텐츠 연계 제공)구축추진
▶ 교육공동세가 함께	●학생성장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편성	○ 과정중심평가 내실화 ○
운영 역량 강화	○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를 위한 평가도구 개발 ○ 설립기준 도달에 중점을 둔 과정 중심 평가 설시 역명 강화
60 70 04	○ 성취기만 노날에 장원을 한 과정 장신 청가 없시 박당 강화 - 설습형 과정 중심 평가 연수
	- 현대명 사용 등을 했기 있다 - 학교로 찾아가는 과정 중심 평가 연수 및 컨설팅 지원
▶ 학생 중심 수업회신을 위한	® 평가현실은 위한 3단계 지위
교사의 교육과정-수업-평가	 ● 경기적인을 위한 3만계 각한 -1단계: 자기수업관한 , 2단계 :등 교과 교사의 수업 및 교실 관한, 3단계 : 인근학교와의 소문
전문성과 자율성강화	● 현장의 자음적 회신과 주도적 성원을 지원하는 강학
	○ 현장의 사람의 의신의 구조의 물건을 시원되는 경역 ○현장 교원의 자방적 수업회신 기반을 마련하는 자음장학 지원
	○ 학교와 교육성 간 공유 소통 협력 플랫폼 구축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최면 실시
	-학생 참여 중심 수업 확대 및 학생 수요 중심 자유학기 활동 운영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내실화
	○자유학년제 운영 역량 강화
	-자유하기 활동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지무 연수 및 수업나눔 레스터벨 운약
	- 서울행 자유하던제 현장지원단 운명 : 단위하고 맞춤 컨설팅 연수지원
1-1-3	○자유하던데 안작 지원
자율적 약명을 키우는	- 마을 자원 및 건로적업체험센터 등을 활용한 체험인프라 구축
रुप्रत्याचित्र संबंधित उद्धावय	-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면계 프로그램 지속 발굴
	●고등학교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통한 교육과정 다양화
	○2015개정 교육과정 안작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현장 지원 컨설팅
▶창의 융합역량을 키우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운영
중학교 자유학년제	● '일반고 전성시대 2.0' 운영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다양화
	-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을 위한 강사 체용 지원 및 비교과 활동 활성화
	- 다양한 전로 선택 과목 개선 활성화를 위한 선택 과목 지도 역량 강화 연수
	학생 걱정과 희망을 존중하는 적임교육 및 채임교육 지원
▶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학생	●고고 학점제를 진인하는 학생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 지원
과목 선택권 확대를 통한	○ 개방행 선택 교육과정 운영 지원
고교학점제 적용 기반이런	 증유캠퍼스 지정 운영 및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연합명, 기관명, 쌍방영 온라인명 지속 운영
	 ○ 꿈담하습카레: 개방영 선택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장의·감성·함
	공간 , 강의가 없는 시간을 활용하여 보의 정보전에 밥법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

	●고교자유학년제 오디세이학교 운영
	○성찰과 제험 중심의 고교자유학년제 전환학년 교육과정 운영 -
	 ★시울형력신학교 운영 내실화 ○ 사울형력신학교: 평등교육가 관인교육을 지형하여 민주의, 청의적인 미래 인계를 육성하는 배움과 통점의 핵복한 교육공동에
1-1-4	○에신학교 운영 평가 내실화(연차평가, 중간평가, 중합평가)
핵신학교 결작 성장 및 핵신교육 일반화	●학신학교 경격 성상 -학신학교 하루 영향 현반의 자음관을 확대해 되고 학교 자리 시스템을 설정한 인 개기가 가능명되고 하십시대에 하면 성상 중심의 미리형 학교 3 인 개기가 가능명되고 이 기능 상당 등 기능 경험으로 ○ 지수가능한 미래 사회용 위한 길고 되실 때를 하는 지수, 생명 - 본명 이 기를 기를 가는 건수들 살으면 제계와 - 병대 - 본명 기를 기급하는 건수하는 교수하면 옷 및 제계와
▶ 하신미래교육과 학교자차를	-반원권, 반좌별 교육으로 교육공공성 강화 및 평등교육 내실화
선도하는 공교육 하신	-디지털 기반 하습 환경의 효과적 활용으로 하습만만 다양화
모델보서의 혁신하고 질적 심화	● 핵심학교 교위 학부도 성장지원 및 네트워크 항성화
	○ 혁신학교 교적원별 연수 및 워크숍 ○ 신규지장 핵심하고 및 희망하고 귀설팅 지원
 핵신교육 네트워크 강화. 	
학산학교 유역 위의 화산을	● 역간으로 원인되 ○ 혁신교육 공강대 호가산 및 리터 발굴을 위한 교원, 하부모 연수
동한 모든 학교의 성장 지원	- 해선 미래교육 아카테미
0.0 mm deed 0.0 - 10	-회상미래교육 화부모 연수
	○ 하고회신지원세터운영
	- 서울교육연구년 교사들의 실행연구와 연계한 회신학교 및 학교회신의 현장 및학교회
	- 학교에스와이다. 교육학습장도에 성의 나는 등을 통한 학산학교·인반학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위
1-2, 918	· · 과학·예계등 교육 광성화로 창의·융합형 인계를 키우겠습니다.
	●독서 - 인문 교육 기반 조성
	○서울독서교육지원본부 및 홈페이지 운영
1-2-1	바람질 독서학교, 독서 · 도문 등아리 지원, 독서 · 도문 · 글쓰기 교육자료 개발
협력적 독사·인문 교육	○소통과 나눔의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왕성화	 학교도서관 문화시설 지원: 청소년 문화카메, 독서교육협력네트워크, 학교도서관 지원
: 살 속에서 함께 읽고	: 청소년 공통제 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통과 나눔, 감성을 키우는 문화 예술 기능을 주기
토론하고 쓰면서, 함께	한, 열린 구조의 카페형 학교도시관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두서 · 인문 교육과정 세계화
소등파 협력 중심의	○[서울학생 첫 제 쓰기] -우리들의 첫 제쓰기(중) : 협력적 제쓰기 교육 ○[서울학생 정 제 되기] -사람제 인문학(고) : 살과 만나는 인문학 교실
독서•인문교육	
	●목서 · 도문 · 글쓰기 교육 활성화 ○교육과정 연계 독서 · 토론 · 글쓰기 교육 교위 역량 강화 지위
▶소통과 햄릭중심의	-서울형 토론모형, 쓰단쓰단 협력적 금쓰기 위크숍, 교원 위크숍, 교육자료 개발
독서 · 토론 · 글쓰기 교육	○함께 읽기 및 독시 문화 확산 : 함Ν, 교사, 학부모 독시 동아리 활성화, 지위
환성화	○자역사회 연계 독서 · 인문 네트워크 강화
▶함께 읽고 다분이	·지역주민, 하부모 대상 인문학 본서트, 왜 읽어주는 하부모 워크숍 운영
성장하는 독서문화 확산	●독서 기반 수업 회신 지원
및 인문소양교육 지원	○핵심 개념 중심 독서 프로젝트 '서로 성장하는 교실'운영 지원
A 64-04-1-14	: 핵심 개념 중심 교육과정 제구성, 핵심 개념 연관 도서를 읽고 질문 생성, 도문,
	탐구 등을 통해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권하는 목서 프로젝트
	○ '서로 성장' 지위협의제 구성 · 운영

	-교육과정 방구, 핵심계년 연관도시 개발, 독시기반 교육과정제구성 등 연구지원 -서로 성장하는 교실 수업 나눔 및 우수사례 공유
	응용합인의 수선을 직원 가장 모두 되었다. 인당구 - 네용, 모든 온실의 가장 수업 온실 및 설렘 영가 경찰 그차하게 보는 경우 기가 가장
	 비대 해설의량 항상을 위한 영계교육 대실화 ○ 의치교육대상 선별도구 개설(등의의 문서혜리레임가 및 면접평가) 이미리 해설의방송선 영계교육 보고년 개설 ○ 기설개설 남편 영제교육 선도학교' 운영 : 영제교육 전입단제에서 제공 발전
1-2-2 과학·열제·절보와 교육 및 성흥합 레이커교육 확산 ▶가학성자·정보에 대한	소스트트웨이 교육 환경을 및 정보관등학교수 강점 (2002년 등 단계를 보기에 선당하고 있다는 기 등 전략 기 등 기 등 전략 기 등 기 등 기 등 기 등 기 등 기 등 기 등 기 등 기 등 기
흥미와 소앙을 키우는 과하영제정보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 공간, 소통, 공유, 협력하며 장의적으로	■핵선이예약과 운영 : 현실학과 시청이대학교에 설치를 매별으로, 사용교육이 나이갈 방향을 선도적으로 설 하는 도착하고도 선생기들이네. 이혜역항을 갖춘 인쇄를 기보는 색모른 사용교육 프로프 ○ 역신이대학교 순설 내용 - 학교회 작용적과 운영, 운영 설가 나눔, 교육정 지정 에듀데로 작문한 공통합극
명박하막 장리리으로 문계를 해결하는 창의-용합행 인제 양성	보시용별 에어기교육 확인 1명을 스크로 양성하고 경험한 경우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직 제외하고, 그 가정에서 외지한 선지가 결정한 다른 사용가 문유되도의 이끄는 1 중 상점에 도쿄로 교육 다시용에 해어가 교육 원론 구축 나이들에 해어가 교육 원론 구축 나이키게는 방법하고 한 번역 함안을 위한 사용형 세여가교육 운행 나이키기교육 방법하고 한 경우 교가 사용하기에, 등하여 연쇄 기도자로 보고, 이키는 에어리 지수 교육 전문한 성당 변구 등 기점 인데에게 교수 교육 전문한 성당 변구 등 기점 인사용생활 해어기교육 소설 변주 등 기점
1-2-3 문화예술교육	●합의중함예술활동 확대 및 대설화 : 한 학기 이상 교육과정 내 종합예술활동(규칙원, 연극, 영화 등)에 학급의 모.

↳ 2020시책 요약 양식

▶수업실연

수업실연은 작년에 스터디 했던 쌤들이랑 마음이 잘 맞아서 올해도 같이 스터디했어요. 면접이든 수업실연이든 저는 스터디원들을 너무 잘만나서 2차 때 스트레스 없이 스터디했던 것 같아요. 좋은 스터디원 만나는 것도 2차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스터디 방식은, 수업실연 스터디는 3명이서 했는데 주요 교과서 3개 정도를 골라서 체험 표현 감상 돌아가면서 나누고, 일요일에는 문제를 내고 다른 사람이 낸 문제를 미리 풀어서(1시간동안) 지도안을 작성해서 화요일에 수업실연을 하고 피드백 했어요. 목요일에는 해당하는 교과서와 해당 영역에서 자유롭게 지도안을 작성해 와서 수업실연하고 피드백 했어요. 그리고 동기유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동기유발을 선생님의 경험을 통해 학생의 경험을 이끌어내는 방식 등을 활용해서 다르게 해석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 이번 시험 주제였던 융합수업에서는 퓨전음식에 대해 먹어본 경험을 말하면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동서양의음식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더 풍부한 맛을 냈다. 이처럼 미술도 다른 과목과 어우러지면서 더 새로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동기유발을 했어요. 미술과 관련되지 않는 듯한 색다른 동기유발을 교과서를 보고 목차별로 하나씩 생각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수업실연 할 때는 저만의 틀이 있었어요. 동기유발하고 관련된 도판 한 개정도 설명 후 주제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학습목표를 쓰고 바로 전개에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학습목표를 큰 활동이 끝날 때마다 명시해 줬고, 활동이 바뀔 때마다 박수 두 번 크게 치고 앞에 주목시키면서 집중시켰어요. 모둠 활동시 순서를 칠판에 간략하게 적어주고, 모둠활동 시간을 명시했어요. 순회지도는 3번 정도 했는데, 1잘하는 학생 칭찬하기 2 뒤쳐지는 학생 또는 질문 있는 학생 피드백하기 3갈등 있는 학생들 갈등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 제시하기 3가지로 정해서 순회지도 했어요.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에게 학습목표를 한 번 더 이끌어내도록 유도하고 수업을 마무리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수업 전반에 걸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의미 있는 발문을 활용해서 학생의 입을 통해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학습방법마다 자신만의 틀을 만들고 중요한 요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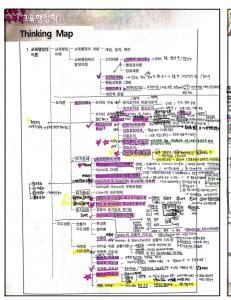
지도안작성은 2차 자료 중 기출예상 답안 보면서 연습했어요.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핵심발문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하고 중간중간 활동 정리해주면서 깔끔하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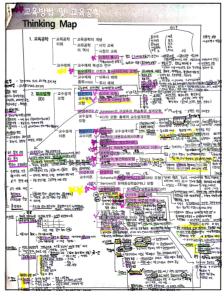
그리고 **시험 때** 무조건 목소리 크게! 자신감 있게! 웃는 얼굴로! 학생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서 수업을 이끌어가려고 많이 노력해야하며, 말이 빨라지지 않게 주의해야하며, 또박또박 말하며 내용을 잘 전달해야합니다. 또한 분필칠판에 수업실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판서를 한다면 무조건 예쁜 글씨로 체계적으로 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해야 해요.

그리고 복장은 면접 때 입었던 블라우스, 연체크 마이 그대로 입고 하의만 검정 슬렉스로 바꿔 입었어요. 결론은 면접이나 수업실연 모두 '꾸준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1차 발표 이후에도 실기에만 올인 하지 않고 1차 발표 이전처럼 일주일에 2회 정도씩 스터디를 꾸준히 했어요. 2차는 뭐든지 꾸준하게 차근차근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잠은 나중에 시험이 다 끝나고 몰아서 자도 되니까 꼭 체계적으로 스터디 계획 세워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2차 준비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Ⅲ.교육학

교육학은 전공에 비해 친숙하지 않아서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지만. 그냥 1월부터 11월까지 한 강사 믿고 쭉 갔어요. 일주일에 두 번(화,목) 인강 듣는 시간 포함해서 5시간정도씩 공부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 화요일 목요일에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했어요. 교육학은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지는 않았고, 답안쓰는 연습도 하반기에 10번 내외로 연습했어요. 대신 문풀 때는 모범답안 최대한 많이 보려했고 교육학 역시복습할 때, 이전에 배운 내용을 계속 누적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두꺼운 교재보다 좀 얇게 요약된 교재위주로 여러 번 회독했어요.(초수때 너무 두꺼운 교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받았었기 때문에 재수 때는 처음부터 얇은 교재 위주로 공부했어요. 재수 때 방법이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 한 달 전에는 15장으로 요목화 정리된 프린트만 계속 봤어요! 교육학은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누적복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월까지 교육학 공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마지막에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늦어도 5월부터는 교육학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전공에 더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육학 15%, 전공 85%정도로 공부했어요!^^







↳ 교육학 요목화

▶마무리

마지막으로, 후회가 남지 않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임용 정말 힘들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이번 임용 공부할 때였어요. 임용시험이 길어질수록 부담감이 배로 커지더라구요. 초수 때와 비교도 안될 만큼 재수 때는 모든 시험에서 불안증이 너무 커서 정말 간신히 버텼던 것 같아요. 이 힘듦을 다시 반복했을 때 고통이 배가 될 것 같아서 더더욱 기를 쓰고 공부했어 요. ㅜㅜ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내가 간절한 만큼의 공부를 했다면 딱 그때 합격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초수 때 간절한 마음과 달리 합격할 공부를 안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군가 저에게올해 꼭 합격할 거에요 라고 하면 저는 저 올해는 합격 절대 못해요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 될 거에요 라고 말하면서 그런 말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민망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재수 때는 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합격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합격할 거라고 저 자신을 믿고 끝까지 버텼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모두 선생님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끝까지 버티신다면 합격은 어느 순간 손에 잡힐거에요! 그러니 오로지 자신만의 싸움 안에서 앞만 보고 달리면 좋겠어요.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다른 쌤들께서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실테니! 저는 약간 쓴소리를 하자면 임고생 기간 동안에는 사람이기를 포기..해야 해요.ㅎㅎ 맛있는 거 먹고, 쉬고, 놀고, 자고 등등 인간의 여러 욕구들을 포기하고 오로지 '임용에 합격해서 참선생님이 될거다!'라는 목표를 위해 '공부와 나'둘만 세상에 남겨요! 쌤들 딱 1년만 그렇게 버텨요. 임용은 길어질수록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너무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짧고 굵게 끝내기 위해서는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이 힘듦의 무게는 나중에 내가 얻게 될 행복의 무게가될 거에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의 2021 미술임용 합격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MONTHLY SCHEDULE♥(예시)

2018							
				5			

٧	♥ 전공~
♥	♥ 교육학~
•	♥
•	♥
•	♥
♥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5/1	2	3	4	5	6	7
인강-교육학1	전공-기본1	인강-교육학2	전공-기본2	전공-기본1,2복습	직강전공-문풀1	월-토 못했던공부
	전공-심화1	교육학1 복습	전공-심화2	전공-심화1,2복습	문풀1 당일복습	교육학1,2 복습
단권화1-2 복습	단권화 3-4복습	단권화 5-6복습	단권화 7-8복습		지난주문풀 복습	
					한달전문풀 복습	
교육과정-중-체	교육과정-중-표	교육과정-중-감	교육과정-중-전체		교육과정-중-백지	
8	9	10	11	12	13	14
인강-교육학3	전공-기본3	인강-교육학4	전공-기본4	전공-기본3,4복습	직강전공-문풀2	월-토 못했던공부
교육학2 복습	전공-심화3	교육학3 복습	전공-심화4	전공-심화3,4복습	문풀2 당일복습	교육학3,4 복습
단권화 9-10복습	단권화 11-12복습	단권화 13-14복습	단권화 15-16복습	전공-기본1,2복습	문풀1 복습	교육학1,2 복습
단권화1-2 복습	단권화 3-4복습	단권화 5-6복습	단권화 7-8복습	전공-심화1,2복습	한달전문풀 복습	
교육과정-고-체	교육과정-고-표	교육과정-고-감	교육과정-고-전체	교육과정-중-전체	교육과정-고-백지	
15	16	17	18	19	20	21
인강-교육학5	전공-기본5	인강-교육학6	전공-기본6	전공-기본5,6복습	직강전공-문풀3	월-토 못했던공부
교육학4 복습	전공-심화5	교육학5 복습	전공-심화6	전공-심화5,6복습	문풀3 당일복습	교육학5,6 복습
단권화 1-4복습	단권화 5-8복습	단권화 9-12복습	단권화 13-16복습	전공-기본3,4복습	문풀2 복습	교육학3,4 복습
단권화 9-10복습	단권화 11-12복습	단권화 13-14복습	단권화 15-16복습	전공-심화3,4복습	한달전문풀 복습	
교육과정-미창-표계	교육과정-미창-표확	교육과정-미창-표계	교육과정-미창-표확	교육과정-고-전체	교육과정-미창-백지	
22	23	24	25	26	27	28
인강-교육학7	전공-기본7	인강-교육학8	전공-기본8	전공-기본7,8복습	직강전공-문풀4	월-토 못했던공부
교육학6 복습	전공-심화7	교육학7 복습	전공-심화8	전공-심화7,8복습	문풀4 당일복습	교육학7,8 복습
단권화 1-2복습	단권화 3-4복습	단권화 5-6복습	단권화 7-8복습	전공-기본5,6복습	문풀3 복습	교육학5,6 복습
단권화 1-4복습	단권화 5-8복습	단권화 9-12복습	단권화 13-16복습	전공-심화5,6복습	한달전문풀 복습	
그 0 키키 - 미리 - 미선		교육과정-미감-미역		교육과정-미창-전체		
교육과정-미감-미역	교육과정-미감-미비	과학과성-미검-미역	교육과정-미감-미비	과학과성-미상-선세	교육과정-미감-백지	